



그룹 통합 물류시스템 'eSCM' 구축 물류산업의 핵심경쟁력 획득

글 조오기 세방(주) 정보기술팀 팀장 okcho@sebang.com

'이제 물류산업의 핵심 경쟁력은 e-Business에서 나온다'
세방에서는 그룹 통합 물류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급변하
는 국내외의 물류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물류비용 절감 및 해운시장의 급변화에 따른 경쟁력을 강
화하기 위하여 물류 프로세스 개선사업을 계획했다.
최적의 고객 서비스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을 하기 위하여
일괄처리서비스(One-stop Service)개념을 모델링하여 시
스템을 이용한 과학적인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비중을 두어 e-Business 전문기업으로 거듭
나고 있다.

● 1965년에 창업한 세방기업은 1,300여 명의
종업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5개 항만에 항만하역,
CY/ CFS(Container Yarde/Cargo Freight
Station), 운송사업(육송, 철송, 해송), LME, 3PL 등
수출입 물류를 기반으로 하는 종합물류회사이다.
특히 금년에는 창립 40주년(9월 13일)을 맞이하여 세
방기업(주)(Global Enterprises)에서 세방(주)
(SEBANG)로 사명을 변경하는 그룹사 CI 작업을 단행
하였다.

IT 전략 및 조직

지난 5월, 세방그룹 전산센터가 통합, 운영됨에 따라
13개사 그룹SM 지원 및 SI 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공
공부문 및 민자사업의 항만자동화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다.

금년도 SM부문의 e-Biz단계별 전략은 다음과 같다.

- 1단계: 국내 물류 및 고정 화주에 대한 사이버 B2B,
EC 및 SCM 구축
- 2단계: 국내 물류 및 일반 화주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B2B 및 SCM 구축
- 3단계: 국제 물류 복합 일관 수송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B2B 및 SCM 구축

현재 1단계와 2단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외 SI 사업으로는 해양수산부의 국가수출입물류 2차 개발 참여 및 산업자원부의 RFID 적용 제품 라이프사이클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정보화 기술 축적 및 항만부문의 프로세스를 표준화하는 데 기반을 다지고 있다. 또한 정보운영 조직은 본사 전산센터와 부산·광양 전산센터를 기반으로 총 4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IT개발 및 구축운영

이제 물류산업의 핵심 경쟁력은 e-Business에서 나온다

세방(sebang.com)에서는 '그룹 통합 물류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급변하는 국내외의 물류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해운시장의 급변화에 따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물류 프로세스 개선사업을 계획했다.

올해 국제물류 eSCM 사업을 시작으로 물류 및 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각 사업부문이

고비용 저효율을 지향하도록 프로세스 및 조직을 재설계 하였다. 이러한 업무 통합을 계기로 현장중심 경영, 책임 경영 구축, 결재단계 축소화라는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최적의 고객 서비스를 실행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원가절감을 위해 일괄처리서비스(one-stop service) 개념을 모델링하여 시스템을 이용한 과학적인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비중을 두어 e-Business 전문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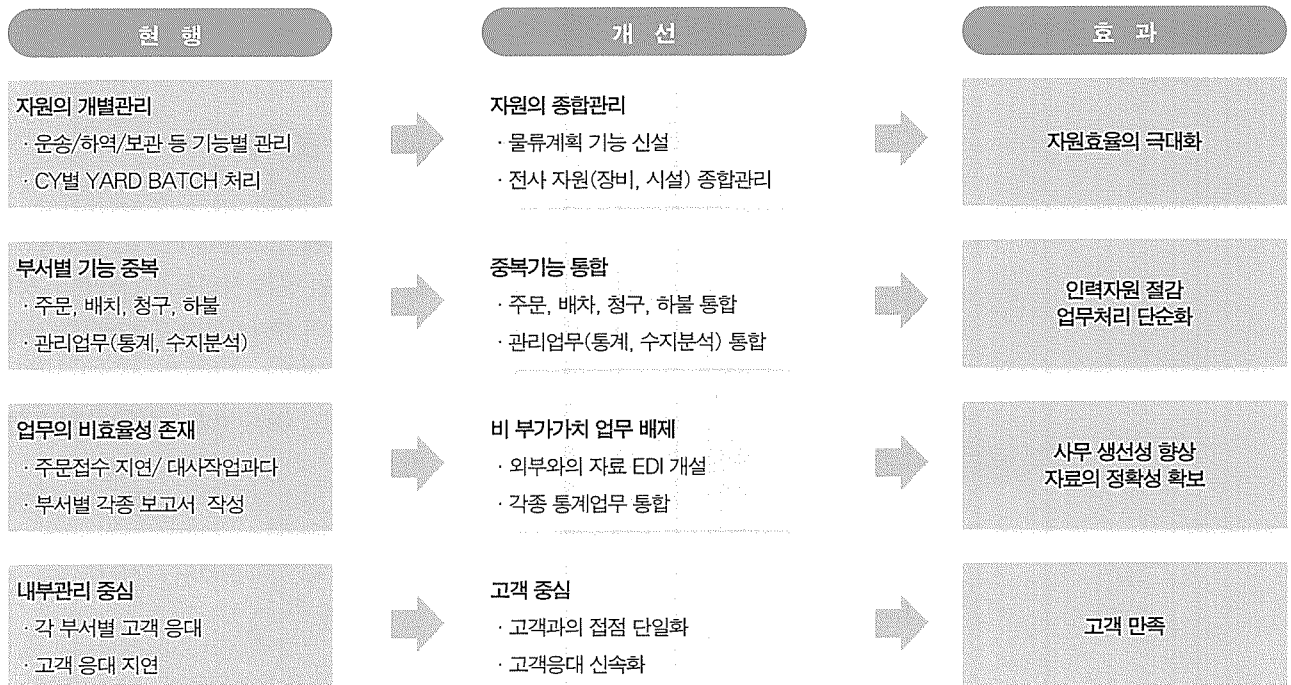
특히 지난 5월부터 그룹 물류의 연계성 확보를 위하여 세방전지 전산센터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그룹사 제조업간의 3PL 상호 연계성 부족으로 인한 정보공유 단절 현상을 보완하게 되었다.

세방은 8월에 완료한 물류센터 자동화 시스템인 WMS를 통한 eSCM 물류시스템을 토대로 국내외 기업간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e-Market 플레이스 등을 차례로 구축해 업무 효율성과 영업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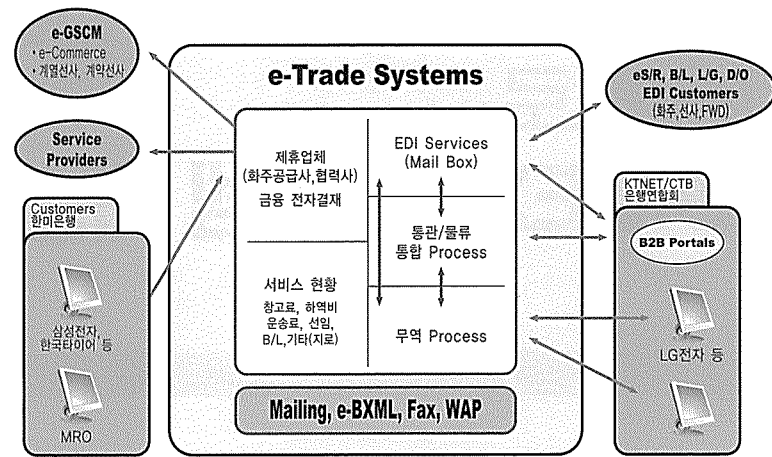
통합물류 전략시스템

세방이 구축, 운영하고 있는 통합물류전략시스템은 오

<그림1> 프로세스 개선 목표



(그림2) eSCM 구현 모델



프라인에 머물러 있던 물류시스템을 온라인으로 확대 적용한 것이다. 이 시스템은 e-Business를 기반으로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 실시간으로 화주, 협력사, 구매자들이 물류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략적 경영정보시스템

그룹 차원의 전자적인 통합정보관리 공유시스템인 전략적 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해 경영층은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지원하고, 인터넷을 통한 각종 물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도록 해 e-Business와 전자상거래 기반을 마련했다. 이 시스템은 그룹 물류 프로세스를 통합한 종합물류시스템(STLS), 사이버 e-Business 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STLS(Sebang Total Logistics System)는 화주, 협력사, 선사가 업무상 요구하는 사항을 십분 충족시키고 있다. 또한 웹을 통한 연속적인 업무처리로 오더에서 수배송, 보관, 청구, 전자지불결제 등을 인터넷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처리된 자료는 실시간으로 검색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현되어 있다.

대부분의 화주, 선사와 B2B 및 EDI화 하였으며, 특히 2004년 11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eL/G, eS/R, eD/R을 한국무역협회(전자추진위원회 e-Trade팀)와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이 공동으로 개발했다. 수입화물 반출 시 모든 문서가 전자문서로 처리되어 수작업 시의 비효율성이 제거되었고 동시에 보다 빠른 화물에 대한 통관

및 반출작업이 시행되고, 업무절차 간소화로 인건비 등의 비용 절감 효과가 향상되고 있다.

e-Business 서비스와 그룹지식관리

세방의 e-Business 운영 현황은 170여 개의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5월부터는 새롭게 외국적 선사, 대리점 업무를 통한 수출입 화물 추적 현황, 선박 운항에 따른 양적하 컨테이너 수량, 화물(내품)에 대한 특성(사이즈, 색깔 등) 자료를 함께 제공한다. 이같은 서비스는 수출입 화주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화물 운송에 따른 작업 소요시간을 단축해 국내의 화주들이 소요 시간을 예측하고 총재고 비용을 감소시키는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된다.

또 주문에서부터 보관, 배차(운송), 화물의 입출고, 재고 현황(물류센터 포함), 정산과 관련한 자료를 전자문서화해 인터넷으로 24시간 제공한다.

여기에 현재 소모성 자재(건설사업부문 포함) 구매부문에 대해서는 거래은행과 협력해 전자구매카드 시스템 구현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하역료, 운송료, 보관료 등 물류매출부문에 대한 정산, 입금은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 전자지불결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항만물류개선사업, SP-IDC, 국가수출입 물류 프로젝트 중 일부 시스템을 한국물류정보통신(KLNET)과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자원부에서도 2005년도 산업혁신기술개발사업의 RFID를 기반으로 하는 상품 라이프사이클 물류정보통합관리 솔루션 개발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세방은 그룹간 정보 공유를 위하여 9월부터 세방하이테크를 포함하여 SKMS(세방지식관리시스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그룹간 정보 공유의 연계성을 통해 'e 지식관리' 표준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며,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기업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SKMS는 업무기능 측면에서 그룹간 조직과 양식 표준화 업무처리 일반 보고서 및 신청서 등을 기간시스템과 연동해 결재완료 후 그룹간 회람 또는 공람 자동 배포 등을 수행한다. Users